

시의회, 5·18 조례 하나로 통·폐합

중복 조문담긴 11개 폐지...5·18 관련 용어 정의·정신 계승 등 규정 정다운 의원, 통합 조례 대표 발의...오늘 시의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의회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돼 왔던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통폐합하고 하나의 조례로 만든다.

시의회는 5·18 관련 조례가 자치법규 형식을 위반하고 광주시의 정책 의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기존 조례를 합친 새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운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5·18 관련 조례는 총 12개다. 이 중 11개 조례를 통폐합해 하나의 조례를 새로 발의해 5·18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5·18 관련 조례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두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조례 통폐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 5·18 이후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해 정신 계승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점, 조례 간 내용이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점, 종합 관리 체계나 민관 협력 체계가 없고 관련 기관 시설의 기능·역할이 겹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새 조례안에서는 5·18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5·18 정신 계승을 위한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자치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등 관계 기관들의 예산·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 노선을 걷지 않고 광주시와 협력을 맺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고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마련했다.

5·18 관련 정책의 콘트론타워 역할을 할 5·18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자체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5·18 유가족과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지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했고 5·18 진상 규명과 왜곡 대응 방안을 명확히 명시했다.

정다운 위원장은 "5·18은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보상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조례마저도 그래왔다"며 "새로운 조례를 통해 5·18재단, 기록관 등 관계 기관들이 다같이 모여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뒤 국비 사업이든 광주시 사업이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유가족 지원, 구묘역 정명, 안장 기준 등과 같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 사항이 많이 남았다"며 "통합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2일 '5·18민주화운동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집행부와 5·18기념재단, 5·18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나선다

광주·전남·전북 광역지자체 공모사업 선정...426억원 확보

광주·전남·전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으로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돼 총 사업비 426억 원(국비 284억·지방비 142억)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초광역 협업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광주시, 전라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전

남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과 지능형 농업 실증 및 고도화,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원격자율작업이 가능한 농기계 스마트화 사업, 최적 생육 및 환경 관리(노지정밀농업), 지능형 농업 데이터 수집 및 제어(관제네트워크) 등으로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한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나주에 이미 구축된 노지 실증 테스트베드에서 작물 생육 여부를 진단하고 병해충 및 품질 진단을 판별하는 등 인공지능 솔루션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주력산업인 농·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농가 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성장한계를 극복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농·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8727억원 증액' 추경 편성

간부 업무추진비 등 삭감...총 예산 7조7770억원

광주시가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본예산 대비 8272억원 증가한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예산안 규모는 6조9043억원에서 12.6% 늘어 7조 7770억원이 됐다.

주요 투자사업 재검토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액 720억원을 발행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 보상을 12일분에서 5일분으로 줄이기도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1억원),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상금 2700만원은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담았다.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35억원),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G-패스 준비금(3억원), 국제양공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40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등도 추가 반영했다.

또 지역 책임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장려금(7억원), 시립병원과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도 편성됐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 세출 절감,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필수 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책으로 도시 속 힐링 책을 매개로 일상 가까이에서 인문학을 경험할 수 있는 광주 동구의 '제2회 오감만족 인문 힐링 북페어'가 지난 2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북·넙치 최적 양식 조건 찾아라

2027년까지 예산 4억원 투입

전북·넙치 양식의 최적 조건을 찾아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안도지역 전북과 넙치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최적의 양식 조건 연구를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4억 원의 예산으로 20개 육상양식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양식장 관리

매뉴얼을 개발, 어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양식장별 환경 조사와 관리 실태를 파악한 기초 자료에다, 올해 품종별 생산성 증감 요인을 분석해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북 양식업은 전북 종자 배양장을 대상으로 수온, 용존산소, 먹이, 질병 등을 분석해 우량종자 생산 조건 찾기에 초점을 맞추고 넙치 양식업의 경우

수온 상승에 따른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시설·방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완도 전북 양식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551어가에서 1만 7000어(4461억원)를 생산, 전국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넙치는 184어가에서 1만 1000어(1800억원) 규모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국어 못한다고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시, 5월7일까지 통·번역활동가 모집 하반기부터 의료통역 서비스 제공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1.7%에 이르고, 그 이유로 '의사소통 문제' (34.4%)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갑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한다.

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갑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한다.

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손 손실 없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